

# 1 루터와 갈뱅에 있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sup>1)</sup>

신정우 교수 / 새문안교회, 조직신학

##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루터와 갈뱅의 계시된 하나님과 숨겨진 하나님의 주제를 비교연구하는 데 있다. 신학계에서 토론되는 주요 이슈는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외관상 이중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양상을 바라볼 때,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상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계시라는 단일 사건에서 믿음의 눈은 계시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면에 인간의 감각은 오직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할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의 관계는 동일하다는 주장도 있다. 루터의 숨겨

1. 이 소논문은 신정우가 The School of Divinity, New College, the University of Edinburgh에 2006년 6월에 제출한 Ph. D. 논문 God Hidden and revealed in Luther and Calvin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논제를 둘러싸고 많은 다양하고 비판적인 견해들이 상존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숨겨지심에 대한 갈뱅의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더욱이 현대 신학적 토론에서, 루터와 갈뱅의 계시된 하나님과 숨겨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의 포커스는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관계이다. 그것은 루터의 비평가들에 의해 토론된 심각한 논점 가운데 하나이다. Ferdinand Kattenbusch, Karl Holl, Hellmut Bandt, and Erich Seeberg 같은 이들은 그 관계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Otto Ritschl, Albrecht Ritschl, Adolf Harnack, Karl Barth, Brunner, Friedlich Loofs, B. A. Gerrish, Alister McGrath, Paul Althaus, and Gerhard O. Forde 같은 이들은 상반되거나 모순적인 것으로 본다. David Tracy는 제3의 길을 따른다. 먼저, 그는 Gerrish를 따라서 루터의 서로 다른 '숨겨지심'에 대한 견해를 조화시키려고 하거나, 그 개념들을 중요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기려는 비평가들을 비판한다. 그는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숨겨지심의 견해는 기독교 종교적 천재의 뚜렷한 '종교적인 경험'으로 가장 잘 읽을 수 있다는 제3의 견해를 선택한다.<sup>2)</sup> 하나님의 숨어 계심에 대한 갈뱅의 생각에 대한 커다란 무지는 부르너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부르너는 "갈뱅은 루터가 그토록 중시하는 계시된 하나님과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 사이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설사 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sup>3)</sup>고 주장한다. 정말 그런가? 갈뱅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를 구분하지 않는가? 루터와 갈뱅의 견해가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2. David Tracy, "The Hidden God: The Divine Other of Liberation", *Cross Current* 4 (Spring, 1996): 12.

3.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Dogmatic*, vol. I (London: Lowe and Brydone, 1962), 325.

루터의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Gerrish가 구분한 'Hiddenness I'과 'Hiddenness II'를 채택한다. 'Hiddenness I'은 '계시 안에 있는 숨겨지심'을 가리키며, Hiddenness II는 '계시를 넘어선 숨겨지심'을 가리킨다. 이러한 구분은 Gerrish의 구분 이후 많은 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구분은 하나님의 숨겨지심을 둘러싼 여러 복잡하고 모호한 양상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 본문 요약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세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신다. 무시되고, 주변 인물화되고, 압제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위안을 받는다. 역사상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쏟게 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발원하는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다.<sup>4)</sup>

David Tracy는 십자가 안에 계시된 희망을 주시는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을 오늘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그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숨겨지심"—자유와 투쟁 가운데 종종 경험하는 무시무시한 힘, 공포, 희망 없음을 넘어서는 희망—으로 오신다.<sup>5)</sup> 특히 그는 이 깊은 숨겨지심을 Gustavo Gutierrez가 생명

4. Vatican II, *Unitatis Redintegratio*, § 11. 십자가 신학에 주의를 끈 유명한 저술 가운데에 다음의 책들이 있다. Kazof Kitamori's *The Theology of the Pain of God* (Richmond: John Knox Press, 1965); Jüngel Moltmann's *The Crucified God* (London: S. C. M. Press, 1974); J. Feiner and M. Löhrer's *Mysterium Salutis* (Einsiedeln: Benziger, 1969).

으로 투영하고, Elizabeth Johnson가 "Who She Is"로 이름 지은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에게서 발견한다.<sup>5)</sup>

Dillenberger에 따르면, 루터 이전에도 하나님의 숨겨지심에 대한 견해들이 있었다. 그는 Chrysostom의 설교나 Clement의 *Stromata*, 그리고 Origen의 *De Principiis*의 여러 경우를 나열한다. 그는 어거스틴의 글에 하나님의 숨겨지심이 풍부하게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디오니시우스에서 타올러에 이르는 신비주의 사상에서 그 의미가 뚜렷이 상술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 루터 이외의 그 어떤 곳에서도 "그 개념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계시의 본질에 대한 그 개념의 필수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6)</sup>

루터의 공헌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정교한 구분에서 시작한다. Lohse는 루터의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구분을 칭송한다: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구분은 기독교 신론의 전통에 대한 루터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 될 수 있다."<sup>7)</sup> 루터는 이사야 45:15을 인용하여 "당신은 정말로 숨어 계시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한다. 루터는 첫 번째 시편 강해 13:18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암흑 속에,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성육신의 신비 속에, 축복 받은 처녀 안에, 성만찬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앞으로 자라나게 될 루터의 하나님의 숨겨지심 개념의 씨앗 형태이다. 시편 강해로부터 계속해서,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은 루터의 전체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된다.

5. David Tracy, *The Hidden God: The Divine Other of Liberation*, *Cross Current* 4 (Spring, 1996): 8.

6. Ibid.

7. John Dillenberger, *God Hidden and Revealed: The Interpretation of Luther's Deus Absconditus and Its Significance for Religious Thought*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53), xvii.

8. Bernhard Lohse, *Martin Luther's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217.

루터와 비교할 때, 갈뱅의 하나님의 숨겨지심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두 신학의 거장 사이에 숨어 계시신 하나님의 비교연구를 다루는 글이나 논문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숨어 계시신 하나님의 이론이 갈뱅의 신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놀랍다. B. A. Gerrish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숨어 계시심에 대해서 갈뱅이 생각하는 바를 다루는 논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sup>9)</sup>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T. H. L. Parker는 그의 책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에서 "숨어 계시신 하나님의 개념은 루터신학의 경우처럼 갈뱅의 신학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sup>10)</sup> 갈뱅신학에서 숨어 계시신 하나님은 루터신학에서만큼 실질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숨어 계시심에 대한 갈뱅의 생각은 상당 부분 루터의 생각과 평행구조를 가진다. 사실 Pighius, Georgius, Bolsec은 숨어 계시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과의 갈등적 구조를 놓고 갈뱅을 공격했으며, 이러한 공격에 맞서서, 갈뱅은 숨어 계시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더 정교하고 논리적인 이론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글로는 B. A. Gerrish의 글인 "To the Unknown God: Luther and Calvin on the Hiddenness of God"이 숨어 계시신 하나님에 대한 루터와 갈뱅의 비교연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 글은 짧은 글로서 루터와 갈뱅을 충분히 비교하고 있지 않다. 비교보다는 각 사람의 견해를 진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이 글은 Hiddenness I과 Hiddenness II의 상충된 견해를 종합하거나 조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 Gerrish는 "하나님의 숨어 계시심에 대한 루터의 생각의 여러 노선을 종합하려는 것은 나의 시도가 아니다. 나

9. B. A. Gerrish, "To the Unknown God: Luther and Calvin on the Hiddenness of God", in *The Old Protestantism and the Ne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141.

10. T. H. L. 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Edinburgh: Oliver & Boyd, 1969), 27.

자신은 Hellmut Bandt의 뛰어난 연구의 동기를 부여한 조화의 충동에 이끌리지 않았다.”<sup>11)</sup>고 진술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루터와 갈뱅의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연구하고, Hiddenness I과 Hiddenness II,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터와 갈뱅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이론은 루터의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언급된 영광의 신학으로 압축되는 중세 정신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다. 영광의 신학은 신비주의적 열망처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본래의 영광, 순수, 위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한다. 루터와 갈뱅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별거벗은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과 위엄은 그를 직접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루터와 갈뱅은 자연이나 십자가, 성경, 성육신, 말씀과 성례와 같은 가면이나 적응하시는 양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나 비스듬한 빛을 통하여 태양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루터의 숨겨진 하나님의 개념은 루터의 신학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 십자가 신학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그의 십자가 신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숨어 계신 하나님은 십자가 신학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개념은 그의 십자가 신학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다. 십자가 신학에서 루터의 숨어 계신 하나님은 계시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과 관련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반대 모습 속에 숨어서 일하는 하나님으로 특징지어진다. 마스크를 쓰신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숨어 계신 상태로 머물지만, 믿는 자에게는 자신을 계시한다는 점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계시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계시를 넘어선 곳에 우리에게 끔찍하고 가끔은 사악한 의도를 지닌 존재로

11. Ibid., 134.

보이는 더 깊은 숨겨지심이 있다. Gerrish는 이러한 숨겨지심을 계시 안에 숨겨지심을 가리키는 Hiddenness I과 대조해서, 계시 밖의 숨어 계심을 가리키는 Hiddenness II라고 부르신다.

루터에게 Hiddenness II는 직접 Hiddenness I의 극단적인 연장과 직결되지만, Hiddenness I과 Hiddenness II는 뚜렷이 구분된다. Hiddenness I과 Hiddenness II는 둘 다 상반된 모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며,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함으로 의롭게 하시며, 지옥에 내려 보내심으로 하늘로 높이 올리신다.”<sup>12)</sup> 이러한 기초 위에 루터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자비를 그의 영원한 분노 아래 숨기신다고 말함으로써 Hiddenness I에서 Hiddenness II로 뛰어 넘는다. Hiddenness II는 인간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영역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상반되어 보이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영광과 엄위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별거벗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그는 순수한 노여움과 분노의 하나님이다. 그는 죄인의 죽음을 개탄하지 않는 불가해한 의지를 지닌 예정의 하나님이다. 그는 비참한 사람들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처럼 보인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에 넘겨줄 만큼 가차 없이 분노를 쏟아 부으신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애로운 약속을 잊은 것처럼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신다. 루터 자신은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가혹한 실재를 발견하고 놀란다.

갈뱅의 숨어 계신 하나님 이론은 적응(Accommodation)에 기초하고 있다. Stephen D. Benin은 그의 책 *The Footprint of God*에서, “갈뱅

12. Martin Luther, *Luther's Works* ed. Jaroslav Pelikan and Hellmut T. Lehmann (St. Louis: Concordia, an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5), vol. 3, 6 (Bondage of the Will) 이것은 다음처럼 축약될 것이다: LW (volume, page).

은 모든 성경을 적응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이해했다.”<sup>13)</sup>고 말한다. H. Jackson Forstman은 그의 책 *Word and Spirit*에서 적응은 갈뱅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석적인 틀”이라고 판단한다.<sup>14)</sup> 학자들은 점차 적응이 갈뱅의 신학을 관통하는 주제라는 인식을 넓히고 있다. 루터보다 갈뱅은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연질서를 강조한다.<sup>15)</sup> 창조 작품 속에 하나님은 단순한 바보도 부인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겨 놓으셨다.<sup>16)</sup> 하지만,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만드심으로 역사 안에 들어오셔야 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죄성에 적응하신다. 하나님은 유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은 갈뱅 신학의 주요 주제이다. 성경에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러한 신적인 적응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적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불가해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아기말로 말하듯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의 어리석음과 숨겨지심 속에 알려진다. 복음은 천사도 놀랄 정도로 하늘의 높이를 초과하는 숨겨진 지혜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계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극장이다.<sup>17)</sup>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십자가 계시 안에 숨어 버린다. 갈뱅은 창조와 섭리와 역사 안에 계시 하나님의 숨어 계심에 크게 주목

13. Stephen D. Benin, *The Footprints of God*(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192.  
 14. H. Jackson Forstman, *Word and Spirit*(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13.  
 15. Gerrish, “To the unknown God : Luther and Calvin on the Hiddenness of God”, 142.  
 1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 ed. John T. McNeill, 2 vol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3. 앞으로 *Inst* (권.장.절)으로 축약함.  
 17. Cf. Susan E. Schreiner, *The Theatre of His Glory*(Durham : The Labyrinth Press, 1991).

한다. 그는 궁극적인 숨은 지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숨어 계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갈뱅은 하나님이 성육신 속에 숨는다고 생각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육체의 비하 속에 숨으신다.<sup>18)</sup>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의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다.<sup>19)</sup> 적응 너머에는 가리지 않으신 절대적인 신이 숨어 계신다. 루터의 경우처럼, 우리는 그의 영광과 위엄 때문에 그에게 접근할 수 없다. 그는 그의 불가해한 의지로서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택정하시고,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유기하시는 예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갈뱅의 신적인 계획의 교리를 살펴볼 때 그것은 분명하다. Arcanum, 즉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숨겨진 계획은 갈뱅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말하는 특징적인 방식이다. 갈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숨어 계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누어져 보이는 이중예정 속에 자리잡고 있다. 갈뱅의 신학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일부는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지옥으로 유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숨은 지점이다. 그는 분노의 하나님으로 불로 죄인을 소멸하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는 심연과 미로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든 그리스도 없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심연과 미로 속에 빠져들 것이다.

마스크(mask)가 루터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특징적인 표징이라면, 적응(accommodation)은 갈뱅의 특징적인 표징이다. 마스크와 적응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루터의 하나님이 마스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숨듯이, 갈뱅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적응시키신다. 갈뱅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과 유한, 불멸과 필멸, 영원과 덧없음, 거룩과 죄성, 영광과 비천의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계곡을 넘어오신다. 하나님의 적응의 목적은 피조물을 향하신 창조주의 사랑을 보여 주며, 그들을 구원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18. *Comm. Phil*, 2 : 7.

19. *Ins* II, xiii, 2.

계시하며, 그들과 친근히 하는 것이다.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갈뱅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과 연약함, 죄성, 아만성, 그리고 문화에 적응하신다. 그는 자신을 낮추며, 작게 만드시며, 비천한 형태를 취하신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며, 등급을 낮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신다. 신적인 완화(Divine lenity)인 것이다. 동시에 그는 인간을 들어 올려서 우리의 나태함과 지둔함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얻게 하신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인간 이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실재를 보여 주는 거울인 것이다.

갈뱅의 적응은 필수불가결하게 숨어 계심을 초래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 자신을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며 줄이는 데서 숨기심을 발견한다. 적응과정에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계시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이 견딜 수 없는 일부 신적인 모습을 굴절하며, 모호하게 하며, 변형시키며, 축소하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적응하기 위해 입는, 일종의 별거벗은 위엄을 가리는 베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나 옷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지심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별거벗은 하나님이 입으신 베일이다.<sup>20)</sup> 세 번째 숨어 계심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데서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베일보다는 하나님의 뒤로 물러나심(withdrawal)과 관계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멀리 떨어져 계시며, 그의 백성을 도우러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하나님 부재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구원의 약속에 의지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루터와 갈뱅은 하나님과 마스크, 또는 하나님과 적응 양식과의 관계에 대하여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하나님은 마스크나 적응 양식(modes of accommodation) 안에 내재하는 동시에 그것을 초월한

다. 마스크는 하나님을 마스크 안에 한정할 수 없다. 부분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마스크 안에 계시다. 마치 부서진 유리조각이 부분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갈뱅은 분명히 성육신 안에서 감금이나 제한과 같은 개념은 없다고 진술한다. 자신을 적응의 양식 안에 맞추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고정되거나 한정되지 않으신다. 갈뱅과 루터는 마치 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물고기 안에 있는 물처럼 안과 밖의 이원성을 녹여 버리는 만유내재신론적 경향이거나, 하나님이 마스크라는 잘못된 범신론적 사고를 경고한다. 갈뱅과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마스크(또는 적응양식)를 분리할 수 없지만, 구분되는 것이다. 갈뱅과 루터의 하나님은 마스크나 적응의 양식 안에서 신성을 잃지 않는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활동적으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나 그의 신성이 세상의 실재 안에 소진되지 않으며, 마스크 안에 자신을 숨기면서도 자기의 신성을 유지한다.<sup>21)</sup> 갈뱅에게 있어서, 적응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위엄을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신성은 완전히 “줄임이 아니라 숨김”으로써 보존된다. 성육신은 이것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는 동안에 “그는 비록 육체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신성을 완전히 유지한다.”<sup>22)</sup> 그의 하늘의 속성과 기능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이다.<sup>23)</sup>

갈뱅은 적응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불연속성 안에 연속성’(continuity in discontinuity)이다. 불연속성은 하나님의 적응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 있는 건널 수 없는 심연에 기인한다. 우리가 적응을 통하여 얻는 지식은 하나님 자신의 지식과 동일하지 않다. 적응은 하나님의 실재와 우리의 이해 사이에

20. *Inst* II, xiii, 2.

21. *LW* 37, 266. (Confession concerning Christ's Supper).

22. *Comm. Matt.* 17 : 9.

23. *Comm. on John* 1 : 14.

있는 엄청난 거리로 인해서, 하나님 지식의 많은 축소와 변형을 요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하며,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다. 더구나 적용된 표현은 하나님의 본성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갈뱅은 신학 전체의 기초를 해칠 정도로 그 차이점을 극도로 몰고 가는 대신에, 적용과 하나님 사이에 강한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갈뱅에 의하면 방주와 타오르는 숲, 성전 안의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형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징표로 허락하신 적용의 형태이다. 그것들은 전혀 의미 없거나 텅 비거나 거짓된 징표가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갈뱅은 우리가 하나님 존재의 어떠한 징표를 인정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그의 존재의 상징을 거짓되게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sup>24)</sup>

요약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적용의 양상들은 비록 그것들이 완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맞볼 수 없지만, 확실하고 실질적인 하나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루터 또한 연속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표한다. 루터는 신인동형적인 표현(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그가 베일이나 포장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보라! 이러한 포장 아래 너희는 나를 분명히 잡을 것이다.”<sup>25)</sup>

우리는 부르너의 견해에 반론을 제시한다. 부르너는 “갈뱅은 루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26)</sup> 하지만 갈뱅은 부르너의 견

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루터처럼 갈뱅은 *Comm. on II Peter* 3:9과 *Comm. on Matt.* 23:37, 그리고 *Inst* I.xvii.2에서 보듯이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와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특히 *Inst* I.xvii.2에서 그는 “복음과 율법”과 같은 “이해되는 신비”와 분명히 구분되는 “깊은 심연에 비유될 수 있는 또다른 숨겨진 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루터와 갈뱅은 Hiddenness I과 Hiddenness II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 다 Hiddenness I이 “하나님의 계시한 것”의 영역에 속하지만, Hiddenness II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 이상”의 영역에 속한다고 이해한다. 루터에게 Hiddenness I은 마스크를 쓴 하나님을 가리키고, Hiddenness II는 마스크를 벗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갈뱅에게 Hiddenness I이 적용 안에서의 하나님의 숨겨지심을 가리킨다면, Hiddenness II는 적용을 넘어선 하나님의 숨겨지심을 가리킨다. 갈뱅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았더라면 머나먼 곳에 숨겨졌을 것이다.”<sup>28)</sup>

루터와 갈뱅에게 있어서 Hiddenness I과 Hiddenness II는 구분되는 개념일 뿐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1) 계시 안에 숨겨지심(Hiddenness I)과 계시 밖에 숨겨지심(Hiddenness II)의 구분이 있다; (2) Hiddenness I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계된다면, Hiddenness II는 그리스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식을 언급한다; (3) Hiddenness I과는 달리, Hiddenness II는 주로 예정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4) 신앙의 눈은 Hiddenness I을 관통할 수 있으나, Hiddenness II의 두터운 덮개 너머를 볼 수 없다. (5) 성령의 인도는 Hiddenness I에 한정되며, 심지어 성령의 램프는 Hiddenness

24. *Comm. on Is.* 6:1; *Exo.* 13:21.

25. *LW* 1.15. (*Gen* 1:2).

26. Brunner, *Dogmatic*, vol., *The Christians Dogmatics of God*, 325.

27. *Inst* I.xvii.2.

28. *Inst* III.ii.2.



II의 경내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6) 하지만 Hiddenness I와 Hiddenness II, 둘 다 기독교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요 사다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는 우리를 숨어 계신 하나님에게로 인도한다; (7) Hiddenness I의 하나님은 다름아닌 Hiddenness II의 하나님이므로, Hiddenness I과 Hiddenness II는 한 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에 기초하는 것이다.

루터보다 갈뱅은 신적인 정의(Divine justice)와 피조의 정의(creaturely justice)라는 두 개의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여 “법을 넘어서는”(beyond law) 하나님에 대한 더욱 정교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갈뱅은 신적인 더 높은 정의와 피조의 정의 사이의 커다란 계곡에 더 포커스를 둔다.<sup>29)</sup> 동시에 그는 이 두 가지 정의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특히 그의 율기 설교에서 갈뱅은 이 두 정의를 ‘이론적 가능성’과 ‘실재적 가능성’으로 대표되는 균형 잡힌 긴장 안에 둔다: “하나님은 율을 그의 더 높은 비밀스러운 정의에 따라서 별할 수 있었다”.<sup>30)</sup> 그러나 그는 ‘더 높은 비밀스러운 정의’가 아니라 ‘피조의 정의’에 따라서 행하셨다. 이러한 긴장을 통해서 갈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화하려고 했다. 즉, 이론적 가능성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신적 정당성을 수호하는 반면에, 실재적 가능성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연약함에 대한 황송한 배려와 사랑을 드러냈다. 갈뱅이 루터보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더 분투한 것은 사실이지만, 둘 다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루터와 갈뱅 모두 피조의 정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정의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이해한다. 둘 다 율법이 완벽하거나 비할 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의 비밀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 다 만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인간의 정의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특히 예정에 대해서, 둘 다 하나님의 유기의 정당성을 피조의 정의를 넘는 더 높은 숨겨진 신적인 정의(Divine justice)에서 발견한다.

숨어 계신 하나님 교리에서 믿음과 성령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 점에 대해 루터와 갈뱅은 놀랄 만한 유사점을 보인다. 그들은 Hiddenness I의 영역에서 우리가 성령의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으로 대변되는 Hiddenness II의 거대한 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Hiddenness I의 비밀에 접할 수 있지만, Hiddenness II는 믿는 사람에게조차 금지되고 닫혀 있다. Hiddenness II에서 믿음은 더 이상 숨겨진 의지의 신비를 꿰뚫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믿음은 단지 축약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여전히 믿도록 인도해 준다. 그러므로 루터는 “만일 믿음이 너무 오래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의 신비를 꿰뚫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단지 미지의 하나님의 심연 안에서 길을 잃을 뿐”<sup>31)</sup>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바르트와 부르너가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매우 대조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르너에 의하면, 루터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실재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리스도 밖에 계시는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 쏟아 붓는 무서운 심판이다. 하지만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유에 기인하는 숨겨진 신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며, 그의 계시 뒤에 끄적하거나 벌거벗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sup>32)</sup>

29. *Last* III, xii, 1.

30. *Sermons on Job* 23 : 1-7, 413.

31. Gerrish, “To the Unknown God: Luther and Calvin on the Hiddenness of God”, 140.

32. Barth, *C*, II/1 (Edinburgh: T&T Clark, 1964), 236-237.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단지 하나님의 베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에 속하지만, 부르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부르네가 분노를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무서운 실재라고 이해한 반면에, 바르트는 분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타협점을 필요로 한다. 루터의 이해에 있어서, 바르트와 부르네는 전체 이야기의 한 면만을 보여 줄 뿐이다. 우리는 루터의 분노의 이중적인 구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Hiddenness I 과 Hiddenness II 에서 루터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분노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Hiddenness I 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계시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그의 분노를 보이신다. 이와 대조적으로 Hiddenness II 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교정할 의도가 없다. 이 분노는 영원한 분노이며, 죄인을 영원한 지옥의 불에 소멸시키는 심판의 분노이다. 나는 전자의 분노를 Wrath I 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Wrath II 라고 부른다. Wrath I 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상한 일이다. Wrath II 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이다. 우리가 루터의 Wrath II 를 부르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엄하고 가혹한 실재에 가깝다면, 루터의 Wrath I 은 바르트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베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또다른 논란이 되는 논점은 루터와 칼뱅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과 예정의 하나님의 관계이다. A. Ritschl과 O. Ritschl, Paul Althaus, Harry McSorley, F. Kattenbusch, David Wright, B. A. Gerrish, Marijn de Kroon, 그리고 A. M. Hunter는 이 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sup>33)</sup> 특히 우리는 루터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33. 루터에 대한 견해를 위해서 Paul Althaus, O. Ritschl, Harry J. McSorley, 그리고 F. Kattenbusch의 견해를 보기 위해서는 신정우의 논문 God Hidden

님으로, 칼뱅의 하나님을 예정의 차갑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특징지우는 일련의 경향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Reinhold Seeberg는 그의 유명한 책 *The History of Doctrines*에서 칼뱅의 신학에 대한 서술을 다음의 말로 결론짓는다: “칼뱅의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능한 의지이다; 루터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사랑의 전능한 에너지이다.”<sup>34)</sup> Max Weber와 Ernst Troeltsch는 루터와 칼뱅의 사랑의 하나님과 예정의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다. Max Weber는 그의 책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경구적인 진술을 한다: “신약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라졌다. 그의 자리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뜻에 의해 모든 개인의 운명을 영원으로부터 이미 결정해 버린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대체되었다.”<sup>35)</sup> 마찬가지로 Ernst Troeltsch는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에서 루터의 하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는 반면에, 칼뱅의 하나님을 예정과 위엄의 능동적인 에너지의 정신으로 보고 있다.<sup>36)</sup> 최근에 Randall Zachman은 그의 최근의 *The Assurance of Faith*라는 책에서 Seeberg, Weber, 그리고 Troeltsch가 제기한 이러한 일련의 사상에 이어, 칼뱅의 하나님은 루터의 사랑의 하나님과 대조

and Revealed in Luther and Calvin Chapter V. 6. “A Harmonious Dual Image of a God of Love and a God of Predestination” 을 보라. Calvin에 대한 A. Ritschl, O. Ritschl, B. A. Gerrish, Benjamin Warfield, Kostlin, Marijn de Kroon, Wilhelm Niesel, Fred H. Klooster, James B. Torrance, A. M. Hunter, Ronald S. Wallace의 견해를 보기 위해서는 신정우 논문 Chapter VI. 4. “A Harmonious Dual Image of a God of Predestination and a God of Love”를 보라.

34. Reinhold Seeberg, *The History of Doctrine*, 2 vols.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7), vol. II, 416.

35.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103-104.

36.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2 vols, trans. Olive Wyon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vol. 2, 584.

적으로 차갑고, 동떨어지고, 엄하신 분으로 묘사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루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따라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죽는 반면에, 갈뱅의 예정의 하나님은 그의 숨겨진 엄숙한 의지에 따라서 일부를 구원으로, 대다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한다고 말한다.<sup>37)</sup>

하지만 나는 루터의 하나님과 갈뱅의 하나님을 날카롭게 대조하는 이러한 시각들이 피상적이고 편파적이며, 루터와 갈뱅이 실제 의도했던 것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한다. 루터와 갈뱅의 하나님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루터의 하나님과 갈뱅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루터와 갈뱅은 이 두 이미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외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루터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넣으시는 예정과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갈뱅의 예정의 하나님은 '임의적이고 변덕이 심한 폭군'이 아니다. 갈뱅의 하나님은 예정과 위엄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더구나 예정 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독재적인 엄격함이 아니라 정의의) 분노의 조화로운 균형이다. "유기자들을 향한 공정한 엄격함이 선택된 자들을 품어 주는 무상의 사랑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응한다."<sup>38)</sup>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부르너의 루터와 갈뱅의 구분을 비판한다: "갈뱅은 교리적인 신학자로서 이중예정론의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따를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한다". 부르너는 이중예정론의 교리를 갈뱅에게만 한정한다. 그러나 나는 이중예정론이 갈뱅뿐 아니라 루터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마서 강해(1515-16)에

37. Randall Zachman, *The Assurance of Fai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3. Here, Zachman cites the views of Reinhold Seeberg, Max Weber, and Ernst Troeltsch mentioned above.

38. *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vol. 1, 3.

서 젊은 루터는 이중예정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예의지론(1525)에서 루터는 이러한 생각을 정교하게 하고 강화한다. 루터의 강조점이 창세기 주석(1539)에서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강조의 전환이지 하나님에 대한 루터의 견해를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루터는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의 통일성을 그의 기독교 안애 찾으려 하며, 동시에 하나님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1539년의 창세기 주석에 두드러진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의 강조는 이중예정론과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부르너가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지식에서 참된 예정교리"<sup>39)</sup>를 갈뱅이 아니라 루터에게만 한정짓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루터처럼, 갈뱅은 사람들을 낙망하게 만드는 이중예정론을 둘러싼 하나님의 숨어 계신 무시무시한 엄한 실재를 깨닫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루터처럼 갈뱅도 예정의 하나님이 다른 아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사실 갈뱅에게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sup>40)</sup> 그러므로 갈뱅의 예정의 하나님은 바로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의 관계는 무엇인가?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의 "두 겹의 두꺼운 가죽"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본성임을 보여 준다. 루터는 사랑을 비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본질로 여기는<sup>41)</sup> 동

39. Brunner, *Dogmatic*, vol. I,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344-345.

40. *Inst* III, xxi, 1.

41. 이 논쟁을 보기 위해서, 신정우의 논문 *God Hidden and Revealed in Luther and Calvin* Chapter. V. 4. "God's Love and Wrath in God Hidden and Revealed"을 보라.

시에, 그들의 균형을 전제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얼굴을 보인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내 등을 보인다.”는 표현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과 등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sup>42)</sup> 이 하나님의 얼굴과 등의 은유는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터에게 율법과 복음, 분노와 사랑, 이상한 일과 본연의 일은 비록 자연의 눈이 그들 사이에 심각한 긴장을 발견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신적인 본질에서의 분열’을 가리키진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등과 얼굴처럼 하나님의 이중적 대칭 양상이다. 루터처럼, 갈뱅은 하나님의 깊은 본성은 사랑에 훨씬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루터가 하나님의 분노를 ‘강요된 본성’<sup>43)</sup>으로 보듯이, 갈뱅은 하나님의 분노를 세상의 심판자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격함’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순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다.<sup>44)</sup> 루터처럼, 갈뱅은 이 양자가 대칭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는 하나님의 의지의 나누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의 또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정의처럼 하나의 실재의 다른 두 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갈뱅은 사랑과 정의의 관계는 태양의 빛과 열의 관계처럼 서로 ‘일치’(agreement)하고 ‘균형’(symmetry)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45)</sup>

루터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핵심 질문은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42. LW 10.126 (Psalm 27 : 9).

43. “Wrath is truly God’s alien work, which he employs contrary to his nature, because he is forced into it by the wickedness of man. LW 42.356. = LW 2.134. (Gen 9 : 2).

44. *Comm. on Lam* 3 : 311-3 ; Cf. *Comm. on Isa* 1 : 21.

45. CO VIII.361, quoted in John T. McNei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212.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다. 그것이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상반된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두 그룹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으로, Ferdinand Kattenbusch, Karl Holl, Hellmut Bandt, 그리고 Erich Seeberg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상반된 것으로 주장하는 그룹으로 Otto Ritschl, Albrecht Ritschl, Adolf Harnack, Karl Barth, Brunner, Friedlich Loofs, B. A. Gerrish, Alister McGrath, Paul Althaus, and Gerhard O. Ford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46)</sup> 보다 적절한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Hiddenness I 과 Hiddenness II 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Hiddenness I 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바로 계시된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숨겨져 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계시된 하나님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남는다. 계시라는 단일 사건에서 믿음의 눈은 마스크 안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을 분간하여, 숨겨진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이 되는 반면에, 이성인 마스크 안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을 분간하지 못하므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남아 있다. 차이점은 바로 바라보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Hiddenness I 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숨겨진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는 달리 Hiddenness II 에서 루터는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에 심각한 긴장을 소개한다. 루터는 성경 안에 신학적인 난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에 상반된 대립된 구조를 지적한다.

루터는 날카로운 신학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모순으로 돌린다. 거기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대립된 의지가 날카롭게

46. 보다 자세한 논의를 보려면, 신정우의 논문 *God Hidden and Revealed in Luther and Calvin*, Chapter V, 1. “Two Streams of Scholastic View on the Relation of God Hidden and Revealed”; Chapter V, 3. “The Relation between the Hidden God and the Revealed God”을 참조하라.

대조된다. 우리의 이성인 이것을 역설이 아니라 확실한 모순으로 판단한다. 그 모순이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의 이성의 능력 안에서는 조화하거나 화해할 여백을 남기지 않는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순과 통일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신적인 역설(Divine paradox)이다. 루터는 신적인 역설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품으려고 애쓴다. 루터는 모든 모순을 신적인 역설 안으로 던진다. 이 신적인 역설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외적인 모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신적인 역설은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한다. 그 영광의 빛은 우리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때만 얻을 수 있다. 루터의 신적인 역설은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를 통하여 생겨난다. 모든 모순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에 기인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모순이 없다. 심지어 믿음도 모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믿기만 할 뿐이다. 오직 영광의 빛만이 외적인 모순 속에 숨겨진 통일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영겨진 매듭은 “인간의 눈에는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통일성”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루터는 갈뱅보다 더 깊은 역설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루터의 역설은 갈뱅의 역설보다 더 날카롭고 두드러진다. 루터의 역설은 우리의 이성이 어떠한 타협이나 조화점도 발견할 수 없는 순수한 모순이다. 루터는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다른 의지로 보이는 것 사이의 갈등에 대해 고통스러운 정도의 관심을 표명한다. 그 갈등을 완화하거나 타협하는 노력 대신에 루터는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안에서의 날카로운 상반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루터는 가끔 성서의 신학적인 난제들을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서로 상반되고 대치적인 관계로 밀어 넣는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속에서 드러내지 않은 많은 것을 뜻하신다.”<sup>47)</sup>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죄인의 죽을

47. LW 33, 139-40. (*Bondage of the Will*).

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의 불가해한 의지에 의해 그렇게 하신다.”<sup>48)</sup>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넘기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sup>49)</sup> 여기서 우리는 마치 두 개의 다른 하나님이 상반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두 진술 사이의 모순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모순을 더 심화시킨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마르시온의 두 개의 다른 의지를 가진 두 개의 다른 신을 상기시킨다. 극단적인 경우,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계시된 자비의 하나님 뒤에 그 의도가 정반대이고, 심지어 불길해 보이 기까지 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 루터는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하고 유기하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운 얼굴을 드러내신 계시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강권하기도 한다. Pannenberg는 루터의 노예의지론에서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심각한 긴장을 바라본다.<sup>50)</sup> McGrath는 논리적 차원에서 루터의 논의가 불가피하게 신학을 부적절한 것으로 만든다고 비난한다. 그것은 신적인 계시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진술이 그 의도가 계시된 하나님과 상반되는 숨겨지고 불가해한 하나님에게 호소함으로써 반박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1)</sup> 우리는 이러한 면모가 루터신학의 일면을 반영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루터는 생생하게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에 날카로운 긴장과 모순을 느끼고, 그 모순적인 요소들을 합리화하거나 체계화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그의 신학적인 본능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갈뱅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이중예정의 두 축을 둘러싼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루터와 두드러진 대

48. Ibid.

49. LW 33, 146. (*Bondage of the Will*).

50. W. Pannenberg, *Der Einfluss der Anfechtungserfahrung auf den Prädeterminationsbegriff Luther*, *KuD*, III (1957), 109-139.

51. McGrath, *The Theology of the Cross*, 165-167.

조를 보여 준다. 루터가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 사이에서 분명한 모순을 느끼는 반면에, 갈뱅은 이 양자의 모순성을 아주 단호한 말로 배척한다: “어리석은 아둔함”,<sup>52)</sup> “그것은 우수꽝스럽다.”,<sup>53)</sup> “모호한 것이 전혀 없다.”,<sup>54)</sup>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은…….”<sup>55)</sup> 루터가 신학의 모순이 되는 난제를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대립된 긴장으로 몰고 가는 반면에, 갈뱅은 그 둘 사이의 화해(reconciliation)를 통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와 계시된 의지 사이의 조화를 추구한다: “나는 그 밖에 어디선가 모두가 외적인 설교로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회개와 믿음의 정신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성서가 어떻게 화해(reconcile)하는지 설명한 바 있다.”<sup>56)</sup>

이러한 점은 신학적인 모순을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날카롭게 대립되는 의지로 몰고 가는 루터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갈뱅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고 그것을 날카로운 반대로 몰고 가기를 꺼렸다. 날카로운 반대 대신에 갈뱅은 외적인 다양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보이려고 했다. 그는 모순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부숴 나갔다. 그는 ‘절대적 가능성 안에서 법을 떠난 변덕스러운 하나님’, ‘두 가지 다른 의를 가진 하나님’, ‘의지를 변화하는 하나님’, ‘악의 창시자로서의 하나님’, ‘부당하고 믿을 수 없는 판사로서의 하나님’ 등의 하나님 사이의 모순적인 개념들을 깨뜨린다. 루터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적인 역설로 특징지어지는 영광의 빛에 주로 의지하는 반면에, 갈뱅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잘못된

52. *Comm. on 1 Tim.* 2:4.

53. *Comm. on Zep* 3:6, 7; *Comm. on Matt* 23:37.

54. *Ins* III.xxiv.8.

55. *Comm. on Zep* 3:6, 7.

56. *Ins* III.xxii.10.

모순을 부수기 위하여 자연의 빛, 믿음의 빛, 그리고 영광의 빛 모두를 동원한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빛에 대해서는 갈뱅은 용어 의미의 명료화<sup>57)</sup>와 같은 주석적인 해결은 물론, 이중 정의(double justice), 적용의 개념, 불연속 가운데 연속, 영역의 차이, 계시의 등급, 유추, 그리고 은유와 같은 여러 가지 논리적, 문학적, 조직적인 해결책에 의존한다.

갈뱅은 또한 믿음의 빛에 의존한다. 그 예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갈뱅의 신에 대한 믿음을 들 수 있다. 갈뱅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는다. 심지어는 악에서도, 갈뱅은 수동적인 허용 이상의 하나님의 의지를 찾는다. ‘두 가지 상반된 의지’를 둘러싼 그의 논쟁에서, 갈뱅은 “하나님은 그가 법으로 공적으로 금한 것을 비밀 계획에 의해서 명하신다.”<sup>58)</sup>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의도하시며, 동시에 의도하지 않는다.”는 모순성과 투쟁한다. 이러한 씨름에서, 갈뱅은 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와 싸우지 않는다.”는 하나님관을 고수한다. 갈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하나님관은 하나님의 의지나 섭리나 예정을 둘러싼 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종종 유용하게 의지하는 수단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힘과 정의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분리될 수 없다.”,<sup>59)</sup> “하나님의 뜻은 가장 높은 의의 표준이다.”,<sup>60)</sup> “하나님은 심지어 악으로부터 선을 만들 수 있다.”<sup>61)</sup>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가 자기 모순적인 양상들을 샐러드 그릇(salad bowl)처럼 생생하게 유지하는 반면에, 갈뱅은 상반되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커다란 도가니(melting pot)에 집어넣어 외적인 모순을 녹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도가니 안에서 이 이중적인 의지

57. *Comm. on Isa* 45:7.

58. *Inst* I.xviii.3.

59. *Sermons on Job* 23:1-7, 415.

60. *Inst* III.xxiii.2.

61. *Inst* I.xviii.

는 '다양한 외양을 지닌 하나의 단순한 의지'임이 판명되는 것이다.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견해는 루터와 갈뱅으로 하여금 독특한 색조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견해를 채색하게 한다. 루터는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움직임은 "ad deum contra deum"(신으로부터 신으로)의 피신으로 특색 지어진다. 이것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동인은 Wrath II, 즉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와 지옥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서 생긴다. 루터에게 Wrath II는 커다란 폭풍 안의 철로 된 산처럼 회개의 어떠한 가르침에 의해서도 감동받지 않는 딱딱하고 무감각한 마음을 지닌 불신자들을 예비된 것이다.<sup>62</sup> 성난 하나님은 자비의 치료 대신에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쳐부순다.<sup>63</sup> 우리의 본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분노를 피신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영원히 도망치지만, 그것은 결국 도망치지 못하며 분노와 죄, 죽음, 그리고 지옥 안에서 저주 받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sup>64</sup>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들은 Wrath II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비록 사탄이 그들을 벌거벗은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달려가게 해서 그 하나님과 충돌해서 멀하게 하려는 사악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sup>65</sup> 그들은 계시된 하나님에게로 피신하며, 그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한다. 루터는 우리에게 악마가 우리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죽음과 지옥으로 놀라게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외치라고 촉구한다: "나는 복음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듣기로 결심했다. 거기서 나는 그 이름이 예수인 자를 발견한다. 나는 나 자신의 마음과 귀를 그에게 기울이며, 그가 말하고 행하는 바를 배운다."<sup>66</sup>

62. LW 12, 316. (Psalm 51 : 1).

63. Ibid.

64. LW 19, 72. (Jonah 2 : 2).

65. LW 12, 312. (Psalm 51 : 1).

66. LW 24, 140. (John 14 : 20).

따라서 루터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ad deum contra deum)라는 피신의 성향을 띤다. Gerrish가 말하듯이 그것은 하나의 움직임이다.<sup>67</sup> 이러한 신앙의 동적인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정체된 데서 벗어나 신선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 준다. 루터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자애로운 하나님에게 정초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갈뱅은 어떤가?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통일성을 입증하려는—그들이 하나의 의지를 가진 같은 하나님이라는—강한 자세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양극성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의(ad deum contra deum) 피신을 약화시켰다. 이것은 'A to B'보다는 'A to A'의 패턴을 띤다. 루터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의(ad deum contra deum) 피신이 마치 우리에게 아이가 성난 아버지로부터 위로하는 어머니에게로 피신하는 것을 상기시킨다면, 갈뱅의 피신은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를 벌할 때, 벌을 받는 아이가 벌을 주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론, 루터가 아버지로 비유된 숨어 계신 하나님과 어머니로 비유된 계시된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그들이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의 같은 분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터가 궁극적인 통일성에 호소하기 전에, 루터는 먼저 하나님의 통일성을 위협하고, 그것을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아주 다르고, 외관적으로 상충된 두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립시키는 것이다. 갈뱅은 하나님이 하나의 같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사이의 모습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에서 비롯된 허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적인 모습에 대해 보다 강렬하게 투쟁한다. 더구나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의(ad deum contra deum) 피신의 틀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노와 위엄으로 가득 찬 무서운 숨어 계신 하나님

67. Gerrish, "'To the unknown God': Luther and Calvin on the Hiddenness of God", 147-148.

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치고 숨을 수 있는 피신처로 이해하는 반면에, 갈뻥은 그리스도를 하늘의 숨어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숨어 계신 하나님에게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도우미, 매개체, 그리고 기초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뻥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 피신하도록 격려한다.<sup>68)</sup> 갈뻥에게 별하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sup>69)</sup>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뻥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참된 목적은 ‘심판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곧장 나아가는’ 것이다.<sup>70)</sup> 갈뻥의 신앙은 루터의 피신보다는 변형이라는 생각에 더 가깝다.<sup>71)</sup> 루터에 의하면, “불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자와 적으로 만든다. …… 믿음은 적과 심판자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든다.”<sup>72)</sup>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 된 연약한 본성에 어두운 미스터리로 보이는 공포와 심판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우리를 대항하는 하나님(*contra nobis*)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pro nobis*)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sup>73)</sup> 갈뻥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은 즉시 우리의 생각을 삼켜 버리는 광대한 심연”<sup>74)</sup>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철저히 변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분명하게, 갈뻥은 하나님의 변형에 대해서 이

68. *Ins* III, ii, 12.69. *Comm. on Act* 3 : 18.70. *Comm. on John* 8 : 9.71. 신정우의 논문 *God Hidden and Revealed in Luther and Calvin*, Chapter V, 8, b. “The Hidden God and Our Faith”를 보라.72. *LW* 9, 96-97. (Deut 8 : 17).73. *LW* 12, 312. (Psalm 51 : 1).74. *Comm. on 1 Pet.* 1 : 20.

야기한다 : “부드럽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딱딱하고 날카롭게 보이실 때, 그는 자신을 변형하시며 얼마간 그의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sup>75)</sup> 나는 ‘피신’과 ‘변형’은 각기 다른 전제에 기초한다고 믿는다. ‘변형’이라는 개념은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전제에 더욱 정초하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면에 피신이라는 개념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이 구분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변형은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 대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리할 의도가 없다. 오직 분노의 가면 아래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할 뿐이다.<sup>76)</sup>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분노의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한 갈뻥의 강조는 하나의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 다르게 보이는 두 양상의 조화로운 공존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인식에 의해 조절되고 강화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건실하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동시에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더욱 깊은 본성으로 이해하듯이, 갈뻥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우선성을 하나님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둔다 :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분을 유익하고 관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자애롭다는 것을 알 때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값없이 베푸시는 선하심에 대한 선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sup>77)</sup>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에 극도의 갈등을 느끼며,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의지로 마치 가엾은 사람들의 광대하고 영

75. *Sermons on Job* 36 : 15-19, 664.

76. 변형의 예로는 아이를 무섭게 벌 준 아버지가 아이가 뉘우치고 놀 때, 아이를 달래 주고 사랑으로 껴안는 것을 들 수 있다.

77. *Comm. on Jer.* 9 : 24.



원한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그들을 버리고 굳게 하고 저주하신다.”고 말한다. 반면에, 갈뱅은 이렇게 믿음을 흔들 정도로 의심스러운 질문을 할 만큼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강렬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루터의 숨어 계신 하나님 경험은 그를 극도의 고뇌에 빠뜨려 “마음이 상하지 않을 자 누구이겠는가? 나는 한 번 이상 상심했으며,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랄 정도로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졌었다.”<sup>78)</sup> 고 외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갈뱅은 비록 이중예정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고백하지만, 루터가 느꼈던 그러한 극도의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루터나 갈뱅 모두 하나님의 통일성을 기독교의 기초 위에 두고 있다. 루터는 1518년의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잘 알려진 경구적인 표현을 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참된 신학과 인식이 있다.”<sup>79)</sup> 1929년의 대요리문답에서 루터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마음의 거울’이라고 불렀다.<sup>80)</sup> 시편 82편 강해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아버지 마음의 거울’로 묘사된다.<sup>81)</sup> 더구나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이해한다.<sup>82)</sup> 창세기 강해에서, 루터는 이 양자의 분리할 수 없는 통일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누구든지 계시된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계시되지 않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잃는 것이다.”<sup>83)</sup> “(나는)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sup>84)</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명상

78. Ibid.

79. LW 31, 53. (Heidelberg Disputation).

80. Luther's Primary Work, 106. (The Large Catechism: Creed) 또한 루터는 그의 Lectures on John 14: 20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가진다. LW 24, 141. (John 14: 20)라고 외친다.

81. LW 3, 192. (Psalm 82, 1530).

82. LW 43, 460, 26ff. = LW 5, 46ff. (Gen 26: 9).

83. LW 5, 46. (Gen 26: 9, 1539).

은 별거벗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sup>85)</sup> 루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과 생명과 거울’로 여긴다.<sup>86)</sup>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숨어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룩한 사다리’인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참된 지식으로 올라가는 가장 낮은 계단이다.<sup>87)</sup> 루터는 선언한다: “아래로부터, 성육하신 아들로부터 시작하라. ……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숨어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 네가 만일 계시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는 너를 동시에 숨어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sup>88)</sup> 루터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올라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위험한 것이다. 루터처럼 갈뱅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부른다: “하나님 자체는 그의 별거벗은 위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에도 그렇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계시된다.”<sup>89)</sup> 루터처럼 갈뱅도 그리스도의 통로 없이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품에 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sup>90)</sup> 루터와 갈뱅 모두 계시된 그리스도를 무시무시한 어둠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심연으로부터 자신을 막아 주는 유

84. Ibid.

85. LW 20, 778, 1-3. (Lectures on 1. John 5: 6) Cf. LW 30, 315. (Lectures on 1. John 5: 6).

86. LW 26, 396. (Gal 4: 8, 9).

87. LW 10<sup>1</sup>, 297. “성서는 우리를 먼저 인간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 우리는 밀바닥으로부터 시작한 후에 위로 올라가야 한다.” Cf.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186-187.

88. LW TR 5, no. 5658a: 294, 24, 34; 295, 5; 294, 4, quoted in Gerrish “To the Unknown God: Luther and Calvin on the Hiddenness of God”, 140.

89. *Comm. on Col 1: 15*.90. *Comm. on 1 Cor. 2: 2*.

일한 길로 이해한다. 둘 다 그리스도는 Hiddenness II의 어두운 구름을 꿰뚫고 우리 선택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깊은 비밀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통적인 속담은 “계시된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러면 숨어 계신 예정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루터와 칼뱅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모순이 정초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 특히 칼뱅은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을 둘러싼 모든 외적인 모순들을 부수기 위하여 완강한 노력을 했지만, 그는 아직 깊은 심연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겸허한 존경을 잊지 않는다.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의 신학적 노력을 초월하는 것이다.<sup>91)</sup> 그것은 “우리가 비밀스러운 선택의 깊은 심연을 측량”<sup>92)</sup>할 때까지는 해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면서 모든 유기자들을 영원한 파멸로 저주하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지 판단할 수 없다.”<sup>93)</sup>고 고백하는 것이다.

칼뱅은 루터보다 그리스도가 예정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예정의 작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동안 비록 그리스도가 중개자로 개입하시지만, 그는 스스로 아버지와 같이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신다.”<sup>94)</sup>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떼어 놓으셨다.”<sup>95)</sup> 그리스도는 선택의 중개자일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처럼 선택의 주체이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

91. 칼뱅은 일부 하나님의 신비에 경외심을 가지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신비는 “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구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멸하기로 예정된 자를 창조하셨나?” 하는 문제다. 이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악을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시고도 자신은 무죄로 남게 되는 전능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

92. *Comm. on Matt.* 23 : 37.

93. *CO* 40 : 445-446. (Epistle, 17 December, 1546 *Calvinus Vireto*).

94. *Inst* III.xxii,7.

95. *Inst* IV.i,10.

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같이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시며, 자신을 선택의 주체로 만드신다.<sup>96)</sup> 하늘에 숨어 계신 아버지와 비밀스러운 작정을 함께 하는 그리스도는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통일성의 기초가 된다.

루터와 칼뱅은 ‘외적인 모순 안에 있는 통일성’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모순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 안에 있을 뿐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비록 그의 의지가 그 안에서 단일하고 단순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보인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무능력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가 같은 것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의지하지 않는지 파악하지 못한다.”<sup>97)</sup> 그들의 공통된 결론은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에게 상반된 의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재로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 의지의 이중성은 인식론적인 문제이지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루터와 칼뱅은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루터와 칼뱅 모두 삼위일체를 적용하시는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나눈다. 이중의 평행 구조를 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령은 마스크를 쓰신 적용하시는 성령과 마스크 없는 숨어 계신 성령으로 구분된다. 불의 혀와 비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입으시는 마스크이다. 동시에 루터와 칼뱅은 숨겨진 하나님으로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본질로서의 성령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시에 칼뱅은 성령을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본다. 게다가 성육신하신 성자는 이중의 마스크를 쓰신다. 하나는 숨어 계신 성자 하나님의 마스크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에 계시 성부 하나님의 마스크이다. 루터와 칼뱅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그린다. 그는 악마처럼 사람들을 도망하게 만드는 엄하

96. *Inst* III.xxiv,5 ; III.xxii,vii.

97. *Inst* I.xviii,3.

고 무서운 심판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의 얼굴에서 도망치기를 원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엄한 심판자로, 성난 심판자로, 사형집행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악마로 알았다.”<sup>98)</sup> 그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증오로 도망하는 첫 번째 악마’로 느꼈다.<sup>99)</sup> 그는 그리스도를 ‘무지개 위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엄하고 무서운 심판자’로 상상했다.<sup>100)</sup> 갈뱅은 어떤가? 갈뱅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예수와 계시된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예수를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 숨겨진 신성에서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지지 않았다.”,<sup>101)</sup> “그리스도의 신적인 위엄이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도록”<sup>102)</sup> 동시에 예수는 숨어 계신 성자 하나님의 마스크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마스크를 가지고 계시다: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은 신적인 위엄이 그의 모든 재능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덮개, 즉 모든 죄인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덮개인 것이다.”,<sup>103)</sup> “하나님은 온전히 그 안에서만 발견된다. ……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리고 완벽히 드러내신다.”<sup>104)</sup>

루터와 갈뱅은 계시를 넘어선 Hiddenness II의 영역에서 심지어 믿음과 성령의 조명도 관통할 수 없는 완벽한 어두움이 있음을 동의하고 있다. 어거스틴이 “오 깊도다! 당신은 이성에게 묻는가? 나는 그 깊이 에 떠노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예정의 깊은 곳에서 떨고 있

98. WA 38,148. *Die Kleine Antwort* (1533). Cf. LW 24 : 24. (John 14 : 2-4); LW 24 : 348. (John 16 : 8-11).

99. WA 33,540. (John 8 : 15) Cf LW 24 : 24. (John 14 : 2-4); LW 24 : 116. (John 14 : 17).

100. LW 24 : 24. (John 14 : 2-4).

101. *Comm. on John* 14 : 10.

102. *Comm. on Rom* 8 : 34.

103. LW 2,46. (Gen 6 : 5,6).

104. *Comm. on Col* 2 : 9.

다.<sup>105)</sup> 루터와 갈뱅은 별거벗은 신성과 별거벗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권능과 지혜와 위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의 게으른 사색으로 하늘을 떠다니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스크 아래’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통해서’이다. 왜냐하면 마스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구름을 통해 태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뱅도 비슷한 생각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비스듬한 빛을 통해서 보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덮개와 베일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덮개나 베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부신 위엄을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루터와 갈뱅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이론을 주변 신학이 아니라, 건설하고 실제적인 신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루터와 갈뱅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이론은 병적이고 음울한 부정의 형태로 건전한 긍정의 신학을 갉아먹는 주변 신학이라는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루터와 갈뱅의 하나님의 숨어 계신의 이론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약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되게, 숨어 계신 하나님 이론은 우리 신앙의 강장제로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 준다. 우리의 신앙은 숨어 계신 하나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더 연단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갈뱅은 하나님의 예정이론이 “우리의 신앙을 건설하게 해 주며,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망하게 해 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칭송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고<sup>106)</sup> 지적한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위협할 때, 우리는 더욱더 계시된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105. Inst III, xxiii, 5.

106.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56.

된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자기 의나 영적인 교만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찌꺼기와 오물을 제거한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참된 신앙이 자라서 꽃피우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을 제공해 준다.

루터와 칼뱅의 숨어 계신 하나님 이론은 '부정을 통한 긍정'으로 특징을 지닌다. 불가해한 하나님은 우리 언어의 긍정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부정신학은 부정의 방법, 즉 하나님이 무엇이 아니신지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다가가는 것이다. 루터는 창세기 강해에서 부정신학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더 효율적인 제3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나 인간의 목소리, 행동, 그리고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런 볼 수도, 만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오직 가시적인 상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와 고통과 같은 부정의 형태 아래 숨어 계신 긍정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분노와 엄격함의 가면 아래 숨겨져 있다. 모든 부정의 궁극적인 지점인 십자가는 가장 값진 보화가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다. 그러기에 루터는 "모든 좋은 것이 십자가 아래 숨겨져 있다."(*Omnia bona in cruce et sub cruce abscondita sunt*)고 말한다.<sup>107)</sup>

루터에게 모든 긍정은 부정 아래 숨겨져 있다. "보편적으로 모든 좋은 것의 주장은 그것의 부인(denial) 아래 숨겨져 있다."<sup>108)</sup> 모든 긍정적인 것은 부정의 방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의는 우리의 긍정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소유할 수도 만질 수도 없다.<sup>109)</sup> 십자가와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칼뱅에게도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107. Regin Prenter,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vi.

108. LW 25,383. (Rom 9:3, 1516).

109. LW 25,383. (Rom 9:3, 1516).

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숨으신다. 우리는 밝은 대낮보다 밤에 별들을 더 잘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놀랍고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시며, 어두움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밝은 대낮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의 종의 눈을 비추신다."<sup>110)</sup>

칼뱅의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sup>111)</sup> "무시무시한 파괴와 영원한 죽음으로 분노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생명을 더 열렬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애로움과 부성적인 사랑을 품게 하신다."<sup>112)</sup> 루터에게처럼 칼뱅에게도 모든 긍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 아래 숨겨져 있다. 값진 보물들이 십자가의 경멸스러운 비하와 단순함 속에 숨겨져 있다.<sup>113)</sup> 불멸의 하나님이 죽을 육체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가 죄의 모습 아래, 생명이 죽음 아래, 축복이 저주 아래 숨겨져 있다.<sup>114)</sup> 루터처럼 칼뱅에게도 부정은 긍정으로 가는 확실한 통로이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 고난이라는 부정을 통과할 때 '하늘의 영광'이라는 긍정의 실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sup>115)</sup>

루터와 칼뱅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져야 한다.<sup>116)</sup>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가난에 찌들고 비루하며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어둡고 무시무시한 덮개' 아래 숨기신다.<sup>117)</sup> 하

110. *Comm. on Ps. 30*:8.

111. *Comm. on Ps. 9*:13.

112. *Inst II*.xvi.2.

113. *Comm. on Col. 2*:3.

114. Cf. *Comm. on 1 Cor. 1*:21.

115. *Inst III*.viii.1.

116. LW 6,147. (Gen 32:31, 32).

117. LW 6,146. (Gen 32:31, 32).

지만 그들의 삶은 숨겨져 있는 아름답고 귀한 보석과 같다.<sup>118)</sup> 한마디로 모든 'Yes'는 모든 'No' 아래 숨겨진 것이다. 지금은 여행객처럼 그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만, 마지막 날에 그들의 숨겨진 삶은 드러나고, 처벌되지 않고 보상되지 않은 것은 거기서 처벌되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sup>119)</sup> 갈뱅은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모든 희망은 그 반대 모습 속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sup>120)</sup> 루터처럼 갈뱅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진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와 더불어 살아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살기 위하여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치욕(ignominy of the cross)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이다.<sup>121)</sup> 숨겨짐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면 우리의 숨겨진 삶은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담혀져 있다면,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것은 숨겨져야 한다."<sup>122)</sup>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져 있지만 "계시의 날을 안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다."

##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루터와 갈뱅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그림을 그린다. 갈뱅의 숨어 계심의 교리는 루터와 상당 부분 많은 것을 공유한다. 갈뱅은 루터처럼 잘 짜여진 숨어 계신 하나님 이론을 가지고 있다. 루터는 갈뱅보다 하나님의 역설에 대해 더 많은 강조를 한다. "아마도 모순적인 요소들을 부수려는 갈뱅의 지치지 않는 노력을 고려할 때, 나는 갈뱅이 '두 의지'의 이론적 문제의 해결을 향해 루터보다 더

118. LW 6.147. (Gen 32 : 31, 32).

119. LW 233.291-2. (*Bondage of the Will*).

120. *Comm on Heb* 11 : 1.

121. *Comm on Col* 3 : 3-4.

122. *Ibid*.

나아갔다."는 B. A. Gerrish의 평가에 동의한다.<sup>123)</sup> 루터는 하나님의 외적인 모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부수려는 갈뱅의 강한 신학적 노력이 부족하다. 갈뱅은 외적인 모순 안에 있는 통일성을 입증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대립의 모습을 예리하게 묘사하는 데 소극적이다. 루터는 역설적 긴장 가운데 신학을 전개하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반면, 갈뱅은 역설을 그의 신 이해의 틀 속에 집어넣으며, 두 개의 다른 의지와 같은 모순적인 요소들을 부수어, 신의 통일성을 입증하는 데 더욱 열심이다.

갈뱅의 노력은 자연(이성)의 빛, 복음(믿음)의 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신비)의 빛에 호소한다. 그는 다양한 신학적 해결의 도가니(melting pot) 속에서 신학적 모순을 부수는 데 집중한다. 루터가 자신이 지닌 신학적 통찰력에 보다 충실하고,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면, 갈뱅은 그의 하나님 이해나 섭리관에 기초한 조직신학적 틀을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투박하고 조아한 관계를 정련하는 데 열심을 쏟은 것이다. 따라서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의 긴장은 갈뱅보다는 루터에게 더 강하다.

하지만 루터와 갈뱅 모두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된 이성의 시각에서 볼 때 화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된 이성에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도달한 공통의 결론은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으며, 모든 모순은 단지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제한된 시각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하고, 부당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때로는 무자비한 심판자 같고, 제멋대로 하는 폭군과 같다. 때로는 우리의 적<sup>124)</sup>이나 악마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

123. Gerrish, "To the Unknown God : Luther and Calvin on the Hiddenness of God", 144-145.

님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며 그의 약속에 충실한 분이시다. 예정의 숨겨진 하나님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것이다.

루터와 갈뱅은 외적인 모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확신한다. 둘 다 기독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발견한다. 숨어 계시는 예정의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숨겨진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겸손하게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인정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는 숨겨지고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최종의 원천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숨겨진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루터가 하나님의 진리의 가공하지 않은 투박한 모습을 간파하고 그것을 정련하거나 체계화하기보다 그것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대담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위대한 신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을 지닌 학자라고 한다면, 갈뱅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정련하고 조직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 부는 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모순이라는 배일 아래 숨겨 있는 내적인 통일성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 모든 모순과 힘써 싸운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T. F. Torrance가 두 신학의 거장을 비교한 글에 공감을 표한다: “루터가 더 자신을 제지하지 않고, 더 인간적이며, 종종 다소 지나친 면이 있는 반면에, 갈뱅은 그의 접근에 있어서 종종 더욱 사려가 깊고, 법률적이었다.”<sup>125)</sup>

124. 갈뱅의 'the enemy' 이미지에 대해서는 Jane Dempsey Douglass, "Calvin's Use of Metaphorical Language for God: God as Enemy and God as Mother" in *Princeton Seminary Bulletin* 8 (1987): 19-32을 보라.

125. Thomas F. Torrance, *The Hermeneutics of John Calvin*(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8), 159.

「Diagram 1」 God Hidden and Revealed in Luther

Revealed God	Hidden God
God clothed in the mask	God naked
Will of sign	Will of good pleasure <sup>126)</sup>
God preached	God not preached
God for us	God himself <sup>127)</sup>
Concretized and humanized	Divine Majesty and glory
God who wills to save all	God of predestination
God does not abandon us,	God abandons us,
Merciful God	God chooses some, damns many.
Weeping to see the <i>Deus absconditus</i> consigning men to perdition,	Consigns men to perdition,
Love and grace	Pure anger and wrath
Faithfulness and truth	Liar and heresy
Justice	Makes us damnable, and seem to delight in the torments of the miserable.
Object of love,	Object of hatred
His will revealed in his Word	Inscrutable will
God keeps his Words,	God does not keep his Words
God the Father	God the Judge <sup>128)</sup>
Deplore the death of a sinner,	Not deplore or take away death
God bound by his Word	God of freedom
God of life	God of life and death, and all in all
His back part (posteriora) which God allows us to see	His face of glory we cannot see
His face of favor	His back of wrath
We should love, thank and Praise God. <sup>129)</sup>	We should fear and adore.
Christocentric idea: Christ is not only the mirror of the hidden God, but also the only ladder to him.	
Luther's view of God: one and the same God like face and back with the same "I-consciousness" in perichoretic relation.	
<i>Divine paradox</i> (for our reason, real contradiction, but for the eye of God, apparent contradiction and inner 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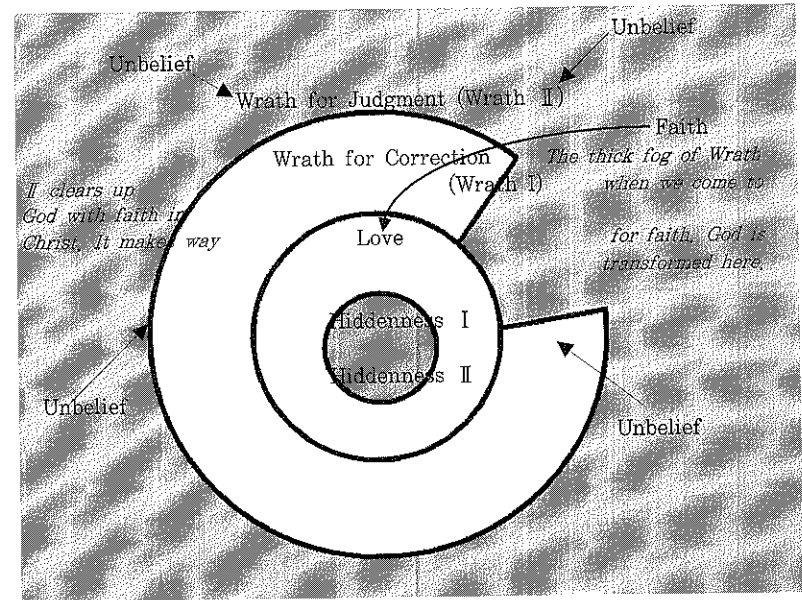
126. LW 2.46-49. (Gen 6:5, 6).

「Diagram 2」

	Luther's God	Calvin's God
Reinhold Seeberg	Omnipotent energy of Love represented in Christ.	Omnipotent will rules throughout the world. <sup>127)</sup>
Max Weber	Merciful Father in heaven of the New Testament.	Transcendental being deciding the fate of every individual in his incomprehensible decree. <sup>131)</sup>
Ernst Troeltsch	God of mercy and grace who forgives sins.	Spirit of active energy of predestination and majesty. <sup>132)</sup>
Randall Zachman	God dying for the forgiveness of sinners according to God's revealed will.	God predestinating some to salvation and most to damnation according to his hidden and majestic will. <sup>133)</sup>

127. LW 3.69. (Glossa : Psalms vi ; 56.196. Röm Scholte 2 : 7-9).  
 128. LW 9.96-97 (Deut 8 : 19) ; LW 19.79. (Jonah 2 : 7).  
 129. LW 10 III. 154. 루터는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대속적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한 후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130. Seeberg, *The History of Doctrine*, vol. II, 416.  
 131.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03-104.  
 132.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2, 584.  
 133. Zachman, *The Assurance of Faith*, 3.

「Diagram 3」 The Structure of God's Love and Wrath in the Hidden God & Our Faith escaping from the storm of God's Wrath and proceeding into God's Love in it.



1. Hiddenness I is composed of 'wrath for correction' and love under it.
2. Hiddenness II is composed of 'wrath for judgment'. Disbelief bumps against 'wrath for judgement'.
3. When faith is approaching, the hard shell of Wrath II melts away. Faith is immune and safe from the horrible attack of Wrath II in Hiddenness II. The meaning of faith lies in the process of getting out of the storm of 'wrath for judgement' in Hiddenness II and proceeding into the area of Hiddenness I, where it breaks through 'wrath for love' and finally finds God's pure love for us and stays there.